

존 오스왈트 박사, 킹스, 세션 18, 1부

열왕기하 3-4장, 1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땅 위의 언약. 최근에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열왕기서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살펴보는 것을 봅니다. 땅 위의 언약이라는 제목은 말장난이 좀 있는 편인데, 한편으로는 땅 위에서 작용하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이 그들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반복해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땅에 떨어진 언약입니다. 이번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이전에 주장했고 오늘날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역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두 개의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하나의 사역이며, 두 명의 다소 다른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표는 바알이 북쪽 왕국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 남쪽 왕국 유다의 신으로서 야훼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의 일생과 사역의 결론과 엘리사의 소개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3장과 4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며 엘리사의 사역, 특히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에 관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압에 대한 공격부터 시작합니다.

유인물에서 알 수 있듯이 모압은 아합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하지만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 대항했습니다. 우리는 3장의 앞부분에서 4절에 이어 모압이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백 년 이상, 거의 200년 동안 모압은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합이 죽자 그들은 기회를 보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합은 그의 아들 아하시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궁전에 있는 성전의 격자 구조를 뚫고 떨어져 부상을 당해 사망하기 약 6개월 전에만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이자 아합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 또는 요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람은 매우 신속하게 모압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말을 하여 그와 여호사밧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hab은 '오,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난 네 편이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그리고 여호람은 우리가 남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모압은 사해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쪽으로 내려가 북쪽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나는 남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유다를 거쳐 가고 싶고, 에돔을 거쳐 돌아오고 싶습니다. 에돔은 현재도 여전히 유다의 속국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세 왕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습 공격이나 이 남쪽 국경에 대한 생각은 아마도 북쪽 국경보다 훨씬 더 취약하게 방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남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7일 동안 여행한 후에 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호람에 관해 몇 가지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2절과 3절에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의 행함과 같지 아니하였음을 주목하라. 아하시야에 대하여는 그도 그 부모가 행한 일을 그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어떤 이유에서든 바알에 대한 그 강렬한 숭배에서 약간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의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돌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야훼에 대한 헌신과 충성심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이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반응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붙이시려고 우리 세 왕을 불러 모으셨느냐? 그는 그와 그의 두 동족을 향한 여호와와의 동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그를 잡으러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 여호와께서 나를 잡으러 나오십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것은 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전에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발은 여호와 안에 두고 싶지만 한 발은 세상에도 두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잡으러 오셨구나'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상황에서도 그런 태도를 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단호한 일이다. 그러면 만일 어려움이나 악이나 환난이 너희에게 닥치면 그것은 반드시 여호와와 손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너희가 알느니라. 그분의 허락하신 뜻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을 거쳐 나온 그는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반응에서 그 점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기에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와 선지자가 없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시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혹은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요람과 여호사밧의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마음이 온전히 그분의 것이라면 우리의 반응은 "주님,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십니까?"입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성취하고 싶나요? 사실은.

이 사건은 야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한 신성한 마련을 보여 주실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매우 조심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문제를 보내신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예 그는 않습니다. 예 그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때.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자신의 보살핌을 보여주고, 아마도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러 나오시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우리를 그분께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그 악이 닥치는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항상 좋은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자, 그것은 일종의 까다로운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시험하는 것과 유혹하는 것은 실제로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 영어에서는 이러한 유혹의 수단을 악을 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구분했으며, 제임스가 말한 것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쁜 일을 하게 하려는 의미에서 당신을 유혹하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바로 이거야.

그리고 바울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시험이 없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당신의 삶에 어떤 시험이 닥치더라도, 어떤 도전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피할 수 있는 길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예 그는 아닙니다. 그는 현대 영어 의미에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아니, 절대로.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이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요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신이에요.

당신은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잠깐, 잠깐, 잠깐,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계획하실지 알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제 흥미롭습니다.

여호수아는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장교 중 한 명이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자신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우리는 그가 왜 함께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함께 가라고 지시하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엘리사는 꽤 무뚝뚝합니다. 그가 요람에게 이르되 너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들을 시험해보지 않느냐? 그 선지자들을 시험해보는 게 어때요? 여기서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기 요사밧이 아니었다면 나는 당신과 아무 관계도 없었을 것입니다.

씨. 그러나 그는 요사밧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흥미 롭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일종의 최면 상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그는 와서 음악을 연주할 하프 연주자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것은 고대 세계의 선지자들 사이에서 전형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소유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간단히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소유되기를 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방금 말했습니다. 음악을 연주할 사람을 데려오세요. 따라서 우리가 이 구절 중 일부를 얼마나 많이 읽는지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유일한 장소입니다.

다른 모든 곳은 단순히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이며, 하나님은 선지자와 선지자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을 보지 못할 것이며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하여 너와 네 가족과 네 짐승이 마시리라.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모압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신 공급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당신을 이런 상황에 두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신 편이고 당신을 위한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당신을 이러한 상황에 데려왔습니다. 자, 다시 우리 지도를 보면 모압, 실레합니다. 에돔과 에돔은 유다 남쪽 사해 끝 부근의 땅입니다.

이 계곡의 동쪽에 있는 산 너머에는 매우 건조하고 매우 건조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물이 없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땅이 물로 흐를 것이라는 사실.

어머. 정말 놀랍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기적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설명을 찾을 수 있는지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뭐, 좋아,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 정말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덕에 큰 폭풍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막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갑자기 땅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흘러내려 이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적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기적의 쟁점은 언제, 어느 정도인가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물이 흐르는 곳을 말씀하실 정도로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인 18절이 문제가 됩니다.

19절. 당신은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주요 성읍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너는 모든 좋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모든 샘을 막고 모든 좋은 밭을 돌로 망칠 것이다.

어머.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글썄요, 언어를 보세요. 그는 그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찰입니다. 이제 그들은 확실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너무 멀리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엘리사는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다음 왕으로 세운 시리아 왕 하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헤이즐은 왜 울고 있나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아뇨. 그는 단지 관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이것이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들 중 일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종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지력으로 이것이 그들이 할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열려 있는 모든 문이 반드시 당신이 통과해야 하는 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열린 문을 보고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가능성을 주셨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접촉하여

'하나님,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까?'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게 나를 통해 해결하고 싶은 거야?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니다.

과연 모압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계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양이 빛나고 그 물은 모두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오, 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이 서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떨어져 나갔고, 서로를 죽였습니다. 빨리, 전리품을 얻으러 가자. 그리고 그들은 세 정당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패하고 땅을 거쳐 마침내 수도에 도착합니다. 모압 왕은 그들을 쫓아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그는 자신의 맏아들을 성벽 위에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는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물러나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글쎄, 마치 유인물을 받은 것처럼, 이것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해설자들 사이에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너무 불투명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끔찍한 일에 너무 충격을 받아 싸울 의지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철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패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제안은 화를 내는 분이 야훼라는 것이다.

그는 요람의 성급한 행동이 이러한 잔혹행위를 초래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모압 사람들이 광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놀라서 다시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요점은 어려움과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의 보살핌과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결국 선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